

## 월가 정신병 악화되는 10가지 징후

월가의 위험한 윤리질병 숨기는 렐리

Feb. 5, 2013, 12:02 a.m. EST

By Paul B. Farrell, MarketWatch

SAN LUIS OBISPO, Calif. (MarketWatch) — 다투 및 S&P 500 지수가 고점을 달성했다. 그러나 렐리는 거대한 리스크를 감추고 있다. 한 뉴스 헤드라인은 “미국 경기회복이 멈추고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을 외친다. 또 다른 곳에서는 “타이머 작동한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한다.

다보스에 모인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은 저렴한 돈이 새로운 자산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관론자 마크 파버는 중대 시장붕괴의 높은 확률을 좋아한다. 누리엘 루비니는 “퍼펙트 스톰에 대비하라”고 말하며 채권왕 빌 그로스는 “신용 대폭발”이 임박했다고 예상한다.

렐리? 버블? 붕괴? 글로벌? 경제적 정점? 미국 GDP 성장을 1%? 정신적으로 병든 은행 시스템?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가 시장과 경제에 해를 끼치면서 감소하는 수익률을 차지하기 위한 잔인한 경쟁을 촉발?

베스트셀러 『아이디어 바이러스(Unleashing the Idea Virus)』의 저자이자 미국의 대표적 지성 세스 고딘의 듣기 불편한 언급에서 위 질문들의 대답이 명확해진다. “만약 70년 전에 헨리 루스에게 ‘타임지는 어떤 잡지인가’라고 물었다면 그는 아마도 사회적 이슈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최고의 주간 뉴스 패키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타임지의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예전에는 수익이 잡지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 주었다. 이제는 수익이 잡지의 목적이 되었다.”

수익이 전부다. 고딘은 수익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이 미국 문화 전체를 감염시키고 있다고 경고한다. 스스로 질문해 보자. 미국 GDP 하락이 우리의 수익 중독과 관련된 게 아닐까? 수익 집착이 미국의 인간성을 희생한 결과가 아닐까? 뱅가드의 창업자 잭 보글이 몇 년 전 『만국의 주주들이여 단결하라(The Battle for the Soul of Capitalism)』에서 경고한 것처럼 GDP, 수익, 자본주의가 현재 미국의 ‘윤리 기준’은 아닐까?

##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절단한 월가

고딘의 견해는 보글이 2008년 붕괴 즈음 했던 예측들과 비슷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이상 자본주의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한다.” 월가와 워싱턴, 기업들의 “행복한 공모”가 1776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순수한 정신을, 돈에 중독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끄는 “병적 자본주의”로 대체한다.

오늘날 3가지 거시 경제적 추세(감소하는 GDP, 미국의 수익 집착, 미 경제를 이끄는 ‘병적 돌연변이’라는 보글의 진단)를 보면, 고딘의 ‘수익 바이러스’가 지난 5년 간 금융 시스템을 넘어 미국 및 글로벌 경제로 퍼졌음을 알 수 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징후들을 외면하고 고딘이나 보글 같은 비평가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 월가 정신병에 대한 10가지 증상

2008년 월가 붕괴 직후 돌연변이 자본주의, 수익 바이러스, 정신적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났다. 새로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명된 지금이 정부가 지난 5년간 폭로하지 못한 사실을 재검토할 완벽한 시점이다.

윤리적 퇴락의 10가지 징후를 통해서 은행 문화를 진단해 보자. 2009년의 골드만삭스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지만 그 이후로 독소적 문화는 은행 시스템과 경제, 민주주의로 깊숙이 파고 들었다.

‘수익 바이러스’가 미국을 2008년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자.

## 1. 자기 중심적 사고와 하나님 콤플렉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이다. 필자가 1970년대 모건스탠리에서 일했을 때 회사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했다. “만약 하나님도 투자를 원한다면 모건스탠리에 전화할 것이다.” 골드만의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2007년 6,800만 달러의 보수를 챙겼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월가 붕괴 이후에는 “은행에는 사회적 목적이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임무를 하는 은행가일 뿐”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 2. 고객들도 속이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들

너무 탐욕스러워서 망하지 않는(too-greedy-to-fail) 은행의 CEO 중에 감옥에 간 사람은 없다. 레이건은 1,800명을 기소했었다. 2008년에 은행 CEO들은 400억 달러 규모의 고리스크 모기지를 판매했다. 리스크에 대해선 투자자들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 장관조차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유지했다. 이것도 태만죄에 해당한다. 투자자들은 수조 달러를 잃었다. 사기나 다름없고 ‘돌연변이 자본주의’며 양심도 찾아볼 수 없다.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

## 3. 비밀 거래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거대한 폰지사기에 가담했다. 논의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나중에 납세자들은 AIG 신용부도스와프를 620억 달러어치 매입하는 비밀 거래를 위해 자신들이 130억 달러를 낸 걸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무부와 연준은 1,800억 달러를 AIG에 투입했다. 사기와 같다.

#### 4. 특혜 주기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뱅크 폴슨은 2006년 재무장관이 되기 전에 전임자들보다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이 CEO로 있었던 골드만의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골드만 친구들을 우대했다.”

#### 5. 병적 자기 중심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정부

AIG가 파산해도 자사는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골드만이 말했지만 나중에 한 보고서는 그 반대를 입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전했다. 뉴욕 연은 총재 가이트너가 너무 많이 지원했다고 TARP 조사 책임자가 밝혔다. “만약 AIG가 파산했다면 골드만은 스스로 손실을 메워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손실을 메우지 못해 파산했을 것이다.

#### 6. 탐욕, 부패, 경제적 악영향을 철저히 부정

롤링스톤(Rolling Stone)의 매트 타이비는 골드만을 “거대한 흡혈 오징어”라고 불렀다. 은행들이 글로벌 붕괴를 초래하고 일반 투자자가 고통을 겪었다. 미 재무부를 강탈한 욕심 많은 은행 CEO들은 300억 달러의 보너스를 챙겼다. 그리고 변한 건 없다. 2008년 붕괴가 반복될 뿐이다.

#### 7. 투자자 속이는 내부자들

뉴욕이그재미너(New York Examiner)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골드만은 서브프라임 시장의 중심에 있으면서 정크본드를 리스크가 없는 AAA 등급 채권으로 팔았다. 그리고 도박하고 헤징하고 투자자들과 반대로 베팅했다. 골드만은 언론처럼 트레이딩 했다. 이것이 붕괴를 초래했다.” 골드만 CEO였던 재무장관과 연준이 골드만을 살렸다. 납세자들은 희생되었다.

## 8. 홍보를 위한 윤리

2008년 붕괴 이듬해 골드만삭스는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했다. 대중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USA투데이는 골드만이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PR 공세에 나섰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취소했다”고 전했다. 수백 억 달러의 보너스를 챙긴 이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5억 달러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은행들은 윤리적 이슈를 홍보 문제로 취급한다.

## 9. 세금과 홍보가 목적인 자선기부

뉴욕타임스는 골드만의 자선기부를 언급했다. 골드만 재단은 내부자들의 보너스에 비하면 너무 작다. 4억 달러의 기금 중 2,200만 달러가 쓰였다. 내부자 보너스는 20배 이상이다.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도 “골드만의 새로운 이미지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전했다.

## 10. 거짓 겸손, 가짜 사과

블랭크페인은 CBS에서 “주택위기 때 골드만이 명백히 잘못된 일에 가담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수많은 주택 소유자와 투자자를 속이고 나서 그는 과시적 배상으로 사람들을 조롱했다. 중소기업에 위해 5년 간 연 1억 달러씩 지급?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1억 달러는 하루 트레이딩으로도 벌 수 있는 수익이다. 2009년 3분기에 1억 달러 넘게 순익이 발생한 날이 36일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이들을 기소할 때다.

**성경이 주는 교훈: 탐욕스러운 자들을 쫓아내시는 예수**

당시에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는 “골드만의 트리클다운(trickle-down)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 경제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 동안 월가는 사회와 거의 나누지 않았다. 월가의 문화는 돈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고 말했다.

다우드는 고딘과 보글과 같은 생각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미친 듯이 날뛰다고 보았다. “큰 집과 보트가 없으면 뒤쳐진다. 중독과 같다. 하지만 미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은행들은 납세자의 돈을 가져가 보너스를 챙긴다. 예수가 회당 밖으로 쫓아냈던 탐욕스러운 자들과 같다.”

다음 질문들을 해보자. 2008년 붕괴 이후 월가가 위에 언급한 10가지 중 개선한 점이 있는가? 아니면 미국을 더욱 파괴시켰는가? 다시 버블이 생기고 있나? 돈에 중독된 월가가 미국을 더 큰 붕괴와 제2의 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

This is from [www.marketwatch.com](http://www.marketwatch.com)

[http://www.marketwatch.com/story/10-signs-wall-streets-soul-sickness-grows-worse-2013-02-05?link=MW\\_popular](http://www.marketwatch.com/story/10-signs-wall-streets-soul-sickness-grows-worse-2013-02-05?link=MW_popular)

## 10 signs Wall Street's soul sickness grows worse

Commentary: Rally hides dangerous moral pathology

Feb. 5, 2013, 12:02 a.m. EST

By Paul B. Farrell, MarketWatch

SAN LUIS OBISPO, Calif. (MarketWatch) — Yes, the Dow and S&P500 hit new highs. But the rally's hiding huge risks: “GDP turns negative as U.S. economic recovery stalls,” screams one headline. Another hears a “Ticking Time Bomb.”

World's central bankers at Davos warn cheap money's blowing a new asset bubble. Dr. Doom, Marc Faber, "loves the high odds of a 'big-time' market crash." Another, Nouriel Roubini, says "prepare for a perfect storm," while Bond King Bill Gross sees a "credit supernova" dead ahead.

Rally? Bubble? Crash? Global? Is the economy "peaking?" Are we on a long, slow-growth downhill slide to a 1% GDP? Is our banking system infested with a soul-sickness virus? Is Adam Smith's capitalist ideal turning against our markets and economy, accelerating the odds of more brutal competitive wars over an ever-shrinking, low-margin profits pool?

The answers became obvious in a disturbing new comment from Seth Godin, best-selling author of "Unleashing the Idea Virus" and one of America's leading minds: "If, 70 years ago, you asked Henry Luce, 'What is Time magazine for?' he'd probably talk about setting society's agenda, capturing the attention of the educated and powerful and most of all, delivering the best weekly news package he could. Today, the answer is clear. The purpose of the magazine is to make as much money as possible. Everything else is in service of that goal. It used to be that the profit enabled the magazine to reach its goals. Today, the goal is to reach the profit."

Profits, profits, profits: Godin warns that our obsession with profits is infecting the entire American culture. Godin is onto something. Ask yourself: Has the decline of America's GDP something to do with our addiction to profits backfiring? Has our obsession with profits come at the expense of our nation's humanity? Are GDP, profits and capitalism now America's "moral compass," the false god Jack Bogle, Vanguard's founder, wrote about several years ago in his classic, "The Battle for the Soul of Capitalism"?

How Wall Street amputated Adam Smith's 'invisible hand'

Godin's perspective echo the predictions Bogle made near the 2008 crash: Adam Smith's "invisible hand" is no longer driving "capitalism in a healthy, positive direction." A "happy conspiracy" of Wall Street, Washington and Corporate America is spreading a "pathological mutation of capitalism," driven by the many profit-addicted "invisible hands" of this new "mutant capitalism," replacing Adam Smith's ideal from 1776, the original soul of democracy and capitalism.

Today as we stare at these three macro trends — the declining GDP, America's all-consuming obsession with profits and Bogle's diagnosis of a "pathological mutation" driving the American economy — and we can easily see that Godin "profits virus" has become a pandemic the last five years, spreading way beyond our banking system, undermining the American and global economies.

Unfortunately, most investors are in denial, blind to the symptoms, refusing to listen, dismissing critics like Godin and Bogle.

## 10 symptoms of Wall Street's metastasizing soul sickness

Shortly after the 2008 Wall Street bank credit meltdown we identified the symptoms of this mutation of capitalism, profits virus, and soul sickness. With the new SEC chairman appointment of a prosecutor this is a perfect time to update, reexamine what government missed exposing the past five years.

Take a moment to diagnose our bank culture through these 10 symptoms of moral pathology, focused on Goldman Sachs in 2009 because of its conflicts of interest with the Treasury secretary. Since then, however, that toxic culture has metastasized, spreading deep into our banking system, economy and democracy.

Look with fresh eyes and ask yourself if America's "profits virus" obsession made us better place since 2008:

## 1. Narcissistic self-interest: with an extreme God complex

Narcissists are self-centered, power-driven, myopic. When I was at Morgan Stanley in the 1970s we ran an ad: "If God Wanted To Do a Financing, He Would Call Morgan Stanley." Goldman's boss Lloyd Blankfein not only paid himself \$68 million in the hot 2007 market but also, after Wall Street's 2008 meltdown, bragged to the London Times he was a "blue-collar guy," that banking had a "social purpose," he was just a banker "doing God's work."

## 2. Pathological liars: incapable of honesty even with own investors

No too-greedy-to-fail bank bosses have gone to jail. Reagan prosecuted 1,800. In 2008 the bosses sold \$40 billion of high-risk mortgages. Secretly shorted them. Never told investors. Even our Treasury Secretary knew. Stayed silent. Sin of omission. Main Street lost trillions. That's fraud. That's "mutant capitalism." That's soulless. Nothing's changed.

## 3. Paranoid obsessive: about secrecy, guilt and non-disclosure

The New York Fed was in on this massive Ponzi scheme. Negotiated in secret. Later taxpayers learned they paid \$13 billion too much in secret deals to buy \$62 billion of AIG credit-default swaps. Bottom line: the Treasury and Fed covered \$180 billion in AIG's toxic CDOs. No disclosure, just fraud.

## 4. Borderline split personalities: ignoring conflicts of interest

The New York Times: "Before becoming Treasury secretary in 2006, Hank Paulson agreed to hold himself to a higher ethical standard than his predecessors ... said he'd avoid his old buddies at Goldman where he was CEO. Later Congress saw many conflicts of interest, not just meetings but favorable treatment for his buddies at Goldman."

## 5. Power-mad egomaniacs: running government for personal profits

“For a year Goldman said it wouldn’t have suffered damage if AIG collapsed,” but a later report proved otherwise, said the Wall Street Journal: TARP inspector general said the New York Fed Chair Tim Geithner did pay too much. “If AIG had collapsed, Goldman would have had to cover the losses itself,” couldn’t collect, would go bankrupt.

## 6. Total denial: of own greed, corruption, damage to economy

Rolling Stone’s Matt Taibbi called Goldman “a giant vampire squid wrapped around the face of humanity.” Banks triggered a global collapse. Main Street suffered. Greedy bank CEOs raided the U.S. Treasury, still got \$30 billion in bonuses, year-over-year 60% increase. And nothing’s changed. We’re on track to repeat the 2008 meltdown again.

## 7. No fiduciary duty: only to insiders, conspired to defraud investors

New York Examiner: “Goldman was at the heart of the subprime market, selling subprime junk as no-risk AAA bonds, then gambling, hedging, shorting their investors. Goldman traded like Enron. That set up the meltdown.” The Fed and Goldman’s ex-CEO at Treasury saved Goldman. Taxpayers got stuck with the bill.

## 8. Moral failures: Just a PR problem, don’t get caught next time

The year after the 2008 crash Goldman Sachs awarded huge bonuses. The public went ballistic. USA Today said Goldman went “on a PR blitz in a bid to undo the damage,” canceled its Christmas party. Amid tens of billions in bonuses they “also launched a \$500 million program for small businesses.” Banks treat moral issues as PR problems.

## 9. Charitable donations: tax and PR opportunities, not moral issues

The New York Times dug into Goldman's charitable deductions: Money to their foundation was dwarfed by insiders' bonuses. Their foundation got \$400 million, gave away \$22 million. Insider bonuses were 20 times more. Even the New York Post said "Goldman's Born Again Image is Laughable."

## 10. Conspiracies cover-up fraud: Feign humility and fake apologies

If caught, just fake it. Blankfein told CBS "he's sorry for the role Goldman played in the housing crisis: We participated in things that were clearly wrong." Clearly wrong? No, "clearly criminal." He was admitting to a fraud. Cheated millions of homeowners, investors. Then he laughs at us with bogus "restitution" claims. A fund of \$100 million annually for five years to small-business owners? The Financial Times said "\$100 million is the profits from one good trading day. In 3Q '09 they had 36 days better than that." It's time to turn the clock back, prosecute, get a pound of flesh from the vampire squids.

## Powerful biblical lesson ... 'Jesus threw them out ...'

Back then, New York Times columnist Maureen Dowd wrote: "Goldman's trickle-down catechism isn't working. We have two economies. In the past decade Wall Street's shared little with society. Their culture is totally money-obsessed."

Dowd echoes Godin and Bogle. Dowd saw capitalism run amuck: For them "there's always room for a bigger house, bigger boat. If not, you're falling behind. It's an addiction. And Washington's done little to quell it." And in a clear dig at Goldman's boss: "And as far as doing God's work: The bankers who took taxpayer money, pocketing obscene bonuses: They're the same greedy types Jesus threw out of the temple."

In all 10 areas, ask yourself: Has Wall Street improved since the 2008 crash? Or has it torn our great nation down further, made America worse in the past five years? Blowing another bubble? Is Wall

Street's addiction to profits pushing us closer to another, bigger market and economic meltdown, driving America closer to the Second Great Depression?